부동산 규제 완화해도… 금리 내려도…

지역 주택대출창구 '한산'

은행권 대출 급증 속
광주·전남 오히려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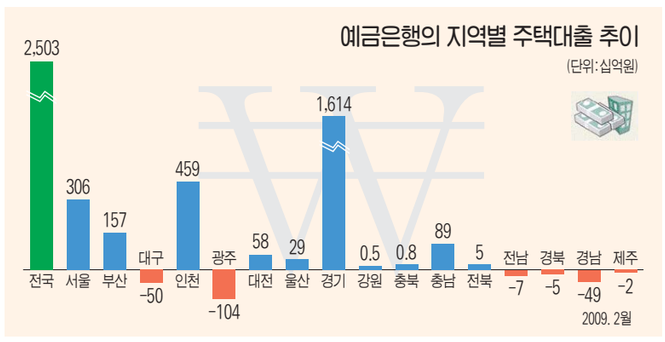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년3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지만 광주·전남 등 지방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경기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대출 수요는 있지만 지방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규제 완화와 저금리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대출 동향'을 보면 2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44조7천980억원으로 1월보다 3조3천163억원이 늘어나 월중 증가액으로는 2006년 11월(4조2천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천614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인천(459억원), 서울(306억원)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광주가 2월에만 104억원이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대구(-50억원), 경남(-49억원), 전남(-7억원) 등 6개 시·도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었다.



특히 광주는 지난 1월 -42억원 감소에 이어 2개월 연속 주택대출이 줄어든데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2월들어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주택대출이 감소하면서 광주지역의 가계대출도 지난 1월 -185억원에 이어 2월에도 44억원이 줄었다.

한국은행은 전국적으로 주택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경기가 살아난데다 저금리를 이용해 가계 자금용으로 사용하려는 추가대출 수요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지 않는 등 주택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저금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경우 올 들어 2차례에 걸쳐 실시된 건설사 구조조정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건설사들이 포함된 것도 대출수요 위축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말 기준으로 광주지역의 가계대출 잔고는 6조7천67억원이며 이 가운데 주택대출 비중은 57.4%인 3조8천515억원이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택금융공사, 아파트 중도금대출 전액 보증

주택금융공사는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파트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서민들에게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임차중도금 보증' 제도의 취급 요건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는 그동안 10년 이내 분양 전환이 예정된 일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임차중도금을 보증해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임대아파트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속옷도 화사하게

현대백화점은 13일 압구정본점에서 '세계란제리페어'를 열고 국내 미입점된 브랜드들의 제품을 선보였다. 이 행사는 16일까지 열리며 구매 영수증을 기부하면 대한암협회에 기부돼 유방암퇴치 기금으로 전달된다. /연합뉴스

KT&G 새 담배 출시

KT&G는 프리미엄 초슬림제품 'Y IS STYLE'을 15일부터 전국에 동시 출시한다.

'Y IS STYLE'은 기존 초슬림 제품과 다르게 풍부한 흡연감, 진한 맛과 깔끔한 흡연 뒷 맛이 특징이다. 타르 1㎎형 BLANC(블랑)과 3㎎형 ROUGE(루즈) 2가지로 가격은 2천500원.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대우건설 인수 자금

만기 연장 등 부담 완화 검토

민유성 산업은행장 밝혀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1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풋옵션 문제는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안팎에서는 산은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대우건설 풋옵션을 인수,자금부담을 덜어주거나 은행들이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행장은 "원하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PEF를 통해 자산 등을 인수해줘 구조조정 등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 측도 금호생명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연말로 예정된 풋옵션을 연기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는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3조원 가량을 은행권에서 지원받았다.

대신 금융기관들은 올 연말까지 대우건설 주가가 일정가격(약 3만4 천원)을 밑돌면 금호아시아나 측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풋 옵션이란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되팔 수 있는 권리이다. 대우건설 주가가 풋옵션 행사가격을 밑돌면 금호아시아나는 3조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연합뉴스

'개인 프리워크아웃' 시행 첫날

광주 신용회복위 '북적'

74명 신청 … 전국 4번째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 시행 첫날인 13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에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연체자들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이날 지부를 찾은 연체자들은 150여명에 달했고 이가운데 74명이 정식으로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마쳤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21개 신용회복위 사무실 중 서울 명동과 영등포, 부산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숫자다.

신용회복위는 연체자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권 대출이 5억원 이하인 다중채무자 중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1년간 운영키로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첫날 광주지부에는 하루종일 연체자들이 몰렸으며 한 사람당 평균 1시간이 넘는 상담이 이뤄지면서 20여명은 예약만 해놓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광주지부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는 30~40대 직장인들이 가장 많았고 이들은 평균 1~2개월 연체자들로 신용카드 빚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채권단의 동의를 받으면 상환기간이 10~20년 연장되고 연체이자 감면 등의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또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CB)에 등록된 연체정보가 사라지고 '정상'으로 바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